

서평

미국, 과연 제국인가?

예종영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연구교수)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논하는 저서들이 쏟아지고 있다. 9·11 사태 이후 네오콘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화 경향의 심화를 계기로 미국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 더욱 커진 학계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세계질서의 향방과 더불어 패권국의 흥망성쇠라는 주제와도 깊은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일상화 된지 오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광주사태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제국주의적 성향에 대한 논쟁이 불거져왔고, 특히 최근의 북핵사태를 비롯한 대북한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미국의 본질에 대한 해석은 논쟁의 핵심에 있다.

오늘날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극도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냉전 시기, 미국은 공산권으로부터 제국주의로 비난받았고, 1960년대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미국내에서도 소위 수정주의자들로부터 신식민주의

로 공격받았으며 심지어 극우파들로부터도 미국이 구대륙을 비롯한 대외문제에 깊이 연관되는 것은 미국건국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이 스스로 제국주의임을 자인한 적은 없지만, 최근에 들어서 미제국을 보다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네오콘을 위시하여 정계 및 학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양상은 9·11 사태를 계기로 논쟁의 전면에 부상된 셈이다. 이 글은 미국의 제국적 성격을 다양하게 분석한 위의 네 권의 책을 검토한다.

만(Michael Mann)은 *Incoherent Empire*에서 미국이 일방적 군사주의에 의존하여 국제질서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제국주의적 발상이며, 이는 위험한 것일 뿐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선택이며 결국에는 미국의 쇠퇴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만에 따르면 국가 혹은 제국의 힘은 군사, 정치, 경제, 이념과 같은 다양한 힘의 자원들이 결집되고 균형적으로 행사될 때 비로소 강화되는 것인데 현재의 미국은 군사력 이외의 부문에서 취약성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국주의적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네오콘이 주도하는 미국의 신제국주의 노선은 신군사주의에 다름 아니며 더구나 선부른 군사력에 의한 힘의 행사는 세계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고 미국 자신에게도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 경고한다. 군사력 위주의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저항을 낳을 뿐이며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대량살상무기의 획득을 더욱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국이 원하기만 한다면 제국주의적 실행행사는 언제 어느 때이건 아무 문제없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 사고에 일침을 가한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조차도 예를 들어 한 불량국가를 공격하

여 점령하고 질서를 회복,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 미국이 이라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를 대변해준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될 수는 없으며 난관은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는 법이다. 특히 국제사회는 다양한 문화, 역사, 이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 부시 행정부의 선이 아니면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군사력에만 의존하여 무리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 주장한다. 부시정부의 제국주의적 성향은 따라서 위험하고 자기본위적이며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적 모색을 거부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한다.

만의 주장은 위의 네 권의 책 가운데 가장 온건한 쪽에 속한다.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제국은 지속되기 어렵고 그러한 힘은 저자의 주장처럼 급속히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힘의 요소 가운데 군사력 이외의 부분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미국 역시 다른 국가들의 지속적 복속만을 요구할 수 없고 가능한 최대의 협력을 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도 미국의 제국주의화에 강력한 비판을 가한다. 미국의 군사주의는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정책의 비밀화를 촉진하여 결국에는 알케이다 이상으로 미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은 결국 첫째, 항구적 전쟁상태를 겪게 되고, 둘째,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약화될 것이며, 셋째, 선전과 역정보, 전쟁과 군사력 예찬이 난무하는 체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며, 넷째, 군사력 집중에 따른 경제자원의 고갈에 따른 국가파산을 맞게 되는 “네 가지 슬픔”을 겪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존슨에 따르면 9·11 사태를 기점으로 미국은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하였다. 현 부시 대통령은 미국을 신로마로 여기고 있고 국제법과 동맹국들의 우려에 개의치 않으며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절제가 없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식민지를 경영했던 과거의 제국과는 달리 미국은 전 세계에 주둔하는 군사기지를 바탕으로 군사적 지배에 기초한 제국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수많은 군사기지의 존재는 미국이 협상과 통상, 문화교류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한 국가 간 관계를 선호한다는 증명이며, 제국으로서의 영역을 표출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군사기지의 존재는 많은 국가에서 반미주의를 확대시키고 결국 미국에 대항하는 폭력의 행사를 낳게 된다. 이는 다시 또 미국으로 하여금 개입주의의 필요성과 명분을 제공하게 되어 더욱 많은 군사기지와 군사주의 정책의 강화라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주의의 부상은 권력의 중심이 대중으로부터 펜타곤으로 전이된 것을 의미하며 펜타곤을 민주주의의 통제 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국 군사주의의 뿌리와 군산 복합체의 부상, 군수산업과 정치지도자들과의 밀접한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군부가 정보기관과 외교정책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제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미국의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핵심부서가 국무성에서 국방성으로 바뀌었고, 무력의 사용이 과거에는 최후의 수단이었다면 현재의 부시정부는 예방전쟁을 미국외교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무력의 시위 및 사용이 최우선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현 미국정부의 군사주의화에 대한 존슨의 우려는 충분히 수긍이 가

는 대목이다. 그러나 저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미국정치가 갖는 다양함과 수렴성이다. 미국의 정부관리와 정치지도자들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군사주의화 혹은 제국주의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은 소수에 가깝다. 현재 소위 네오콘들이 정부의 실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사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기에 걸친 극단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오래지않아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렴하는 능력을 미국정치구조가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미국군사기지가 위치한 국가들이 미국에 복속된 실질적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기왕에 존재하는 군사기지를 통해 자국의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해서 현지의 지휘자가 로마의 총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상호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고,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여 관철된 필리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도 때로는 합의와 조율을 존중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엠마뉴엘 토드(Emmanuel Todd)는 가장 극단적으로 미국을 비판한다. 저자는 미국의 현재의 명백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폴 케네디의 “제국적 남용”(imperial stretch) 명제처럼 미국 또한 엄청난 재정·무역적자, 달러화 약세,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원인으로 결국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가 대변하듯 외국 상품으로 인해 산업기반은 공동화 되고 있고 중산층의 약화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과대한 소비 성향은 가계부채의 증가를 낳고 있으며 이는 모두 미국 쇠퇴의 징후이다. 저자는 미국의 알케이다 조직에 대한 추적은 비록 그 근본원인이 미국의 이슬람권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갖는다고 보지만 그것이 현재와 같이 비이성적이고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총체적 리더십이 훼손되고 있다는 징표라고 단정한다. 정치적 자유와 국제질서유지의 보루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미국이 이제는 스스로의 경제적 쇠퇴와 사회적 불균등을 표출하며 군사력을 통한 경제적 수탈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미국은 나머지 세계에 있어 위협적이고 위험한 존재라고 설파한다. 미국의 군사력이 강해보이지만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같은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며, 미국의 군사력이 제국으로서의 미국을 뒷받침할 정도로 막강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미국은 이념적 보편성마저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테러와의 전쟁이나 불량국가에 대한 군사력 시위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동원을 위한 수사적 핑계에 불과하며, 현재 미국의 군사주의 성향은 제국적 위상의 표출이 아니라 쇠퇴를 감추고 초강대국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며 이는 오히려 몰락하는 제국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토드가 주장하듯 미국의 경제가 순탄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다만 미국사회의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문제들이 미국이 쇠퇴의 징표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최대의 경제강국이며 문제해결의 잠재력과 첨단미래산업과 과학기술분야의 선도력을 갖고 있다. 군사주의 화에 대한 토드의 주장에 대해서는 찰머스 존슨에 대한 지적이 공히 적용될 것이다. 교육수준, 출산율, 가족관계의 특성 등에 대한 저자의 분

석은 미국의 제국주의 성격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재부상을 예측하고 러시아와 협력하는 유럽이 앞으로 미국을 대체할 세력이라는 주장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니올 퍼거슨(Niall Ferguson)의 주장은 토드의 정반대 입장에서 역시 도발적이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은 공식적인 제국에 필적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제국주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의 이익과 직접적 관계없는 국가와 지역일지라도 국제사회의 대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세계경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염병을 방지하고 폭군을 밀어내고 지역전쟁을 종식시키고 테러조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문제는 일방주의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제국적이지 못함에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빅토리아 영국과 같은 효율적인 자유주의적 제국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러한 역할을 미국이 떠맡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더불어 낮은 저축률, 과소비성향과 장기적 재정·무역적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노력과 정치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결국, 퍼거슨이 주장하는 것은 국내정치와 마찬가지로 세계정치에 있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서의 제국의 필요성이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보다 많은 개방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체제와 민주주의를 전파함에 있어서도 미국은 군사력의 사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한 방식이 독립국가 스스로 하도록 방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퍼거슨은 제국주의적 행태가 그것이 아무리 자유주의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지는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 경영이 평화적이고 합의에 의한 것만은 물론 아니었으며 많은 경우 폭력의 행사를 수반했던 경험이 존재하고 미국 또한 친미정권을 수립·유지하는 과정에서 폭정을 용인했던 과거가 있다. 힘의 행사에 대한 대응이 상대방의 순응만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때로는 저항이 있고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폭력을 수반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이다.

미국은 과연 제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위의 다양한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자신도 9·11 사태의 여파속에서 새로운 세계 어젠다를 놓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미국정부가 대테러전쟁선언 이후 강경한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경향성을 띄면서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굳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우려가 있음은 사실이다. 미국의 성격을 판단할 때 한 가지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미국의 본질에도 다양한 면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대외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에 대한 미국내 우려와 반발 또한 만만치 않으며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는 미국 역시 타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조세프 나이(Joseph S. Nye Jr.)의 지적과 같이 국제정치를 형성해 감에 있어 중요한 연성권력과 관련하여 미국은 다양한 문화와 교류하고 융화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중동 지역을 위시하여 세계 곳곳에서 반미 정서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미국

이 내세우는 가치가 아무리 긍정적 요소를 담고 있더라도 그 실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정치에 있어서 현재의 일방주의로의 경사는 수많은 장벽에 부딪칠 것이 명확한 이상 미국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해야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다만 현재 미국에는 아직 9-11의 여파가 남아있는 시점이다. 미국의 흥분이 조금 더 가라앉으면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